강진 '갓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창업팀 선정

초기창업팀 지원사업비 1000만원 많은 2500만원

군 컨설팅 통해 지역 딸기농가 새로운 기회 잡아

강진군 딸기 재배 농가들로 구성된 창업팀인 '갓땀'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에 선정되었다.

우수창업팀으로 선정된 '갓땀'은 초기창업팀 지원사업비인 1,5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많은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갓땀'은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액션 그룹인 강진딸기연구회 회원 중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탄생했으며, 강진 딸기 브랜드화, 다양한 딸기 제품 생산·제조 판매, 딸기 뮤지엄 및 체험 · 로컬 매장 운영 등을 통한 딸기재배농가 공동소득 증대와 귀농민(청년) 일자리 및 창업 기회 제공 등을 목표로 한다.

황상원 갓땀 대표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다"며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꿈을 키운 회원들과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창업 공간 및 창업 자금, 교육 멘토링을 지원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2019년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조직된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액션 그룹 대상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오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2023년도 어머니텃밭 발대식 개최

어르신 직접 재배한 농산물·산나물 등 판매…옛 시골장터 향수 되살려

장흥군은 10일 발대식을 갖고 '어머니텃밭 사업'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머니텃밭 사업은 어르신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 및 산나물 등을 판매함으로써 옛 시골장터의 향수를 되살리고 사업이다.

장흥군 자체사업으로 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

어머니텃밭 사업은 재래시장이 없는 2개 읍면(안양, 부산)과 장흥읍 65세 이상 희망 어르신에게 지역농산물(특산품) 판매장소 및 실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올해 어머니텃밭은 3월부터 12월까지 쉬지 않고 진행 할 예정이다.

어머니텃밭은 2일, 7일 장날과 겹치는 날을 제외한 토요일에 운영한다.

매주 사업 시작 전 지도·관리반(노인복지팀장 등 2명)이 어르신들의 교육을 진행하여 지도·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명찰 패용 불이행, 이용객과 다툼 발생, 외국산 물품 판매 적발, 불량 물품 판매 등 문제 발생 시 실비 미지급과 참여 제외 등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어머니텃밭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이 직접 재배한 향토 농산물 및 산나물 등을 판매함으로써 외지인들에게 어머니 품 같은 따뜻한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완도 해양치유시설 어떻게 운영되나?' 설명회 개최

해양치유센터 5~8월까지 시운전과 함께 단계별 시범 운영 예정

완도군은 지난 8일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 준공을 앞두고 생활문화센터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양치유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해양치유센터 내 16개 테라피실 소개와 프로그램 이용 방법, 운영 계획 등을 안내하고 단계별 시범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해양치유센터 1층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기본 프로그램이, 2층은 부위별, 목적별 치유를 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층에는 가장 큰 규모의 해수풀인 딸라소풀에서 에어버블과, 아쿠아젯, 넥샤워 등 다양한 수압 마사지를 받고, 아쿠아로빅, 아쿠아 트레이닝 등 수중 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명상 풀에서는 수중 사운드와 영상 시스템이 설치된 해수 풀에서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플로팅 요법과 함께 수중 명상을 체험하고, 해조류 거품 테라피실에서는 해조류의 영양 성분을 거품으로 전신에 도포하는 체험이 이루어진다.

또한 노화 염전에서 채취된 천연 머드를 활용하는 머드 테라피실, 피부 개선과 호흡기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해수 미스트실 등 누구나 자유롭게 5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층 전문 프로그램은 개인별 건강 상태를 전문 장비로 측정한 후 해수, 해조류, 머드 등을 활용하여 물을 사용하는 습식 테라피실과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테라피실로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해양치유센터 등 해양치유 시설은 시설물 관리, 홍보·마케팅 등 총괄 관리는 완도군에서 담당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관련 분야 자격증과 경력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양치유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2017년부터 이어온 해양치유산업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하나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주말 연장 운영

6월까지 주말 오전 8시~ 오후 17시까지…연말까지 임대로 50% 감면

진도군이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토·일요일 정상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해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특히 진도군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50% 감면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3~4일 전 유선 연락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사용 전날 오후 5시 이후 또는 사용 당일 방문해 농기계를 수령할 수 있다. 문의는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팀(540-6142).

김희수 진도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영농에 도움이 되고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이 다시 높아져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오늘 저녁은 소고기 어때요?

해남축협서 23일까지 최대 50% 할인

해남군과 해남축협은 한우 산지가격 하락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소고기 할인행사를 펼친다.

해남축협은 지난 1월부터 30% 상시 할인행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축협하나로마트에서 최고 50%까지 추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부위별 한우고기를 30%에서 최고 50%까지 할인하며, 1등급 기준으로 등심 100g당 8,800원→6,160원, 안심 1만1,000원→7,700원, 채끝 1만원→7,000원, 불고기·국거리용 14,100원→1,920원으로 각각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한우고기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소 값 하락으로 이어짐에 따라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축산 농가를 돕고 한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남=기동취재본부